

영문학자가 본 판소리

金 遇 鐸 (成均館大學)

판소리의 genre 라고 하면 우선 상식적으로 소위 「소리」로서의 판소리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 대본으로 사용되고 있는 구체적인 작품 「春香傳」 등을 두고 그 genre 를 말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어떤 문학형식의 genre 를 논하자면 무엇보다도 논의의 대상이 될 그 형식의 대표적인 작품부터 결정해 놓은 다음 그 작품을 구체적으로 분석검토함으로써 과연 그 형식이 어떠한 genre 에 속하는 것인가를 살펴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판소리 대본에는 수십종의 이본(異本)들이 있다고 한다. 우선 판소리 문학의 대표적인 작품이라 할 「春香傳」만 예로 들어 보아도 다른것은 고사하고 판소리 genre 의 결정에 중대한 이견(異見)을 초래할수 있는 이본판도 소위 京板本 申在孝本 完板本 등 세가지를 들수 있다. 따라서 「春香傳」을 소설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에는 京板本이 「春香傳」은 희곡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에는 申在孝本이 그리고 「春香傳」은 판소리 문학이라는 독특한 genre 로 보아야한다는 주장에는 完板本이 각기 그 근거가 될수 있다 하겠다. 그러니까 판소리의 genre 를 논하자면 우선 이 가운데 그 어느 대본을 논의의 공통대상으로 삼아야 하느냐 부터 먼저 결정을 지어야 할 것이다. 말하자면 이러한 선행적인 기초작업이 우선 논의의 대상이될 판소리 형식의 대표적 text 를 결정한 연후에야 비로소 그 genre 의 시비가 초점을 얻게 될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선행작업은 이방면을 전공하시는 분들에게 다끼기로하고 판소리에 대해서 문의한인 본인은 그간에 멸전한 국문학 서적들과 몇몇 국문학자들의 지극히 상식적인 견해들을 근거로 完板本 「春香傳」을 대상으로 골랐다. 京板本은 우선 「판소리」와는 관계가 없으니 자연 논의의 대상이 될수 없고 申在孝本은 특히 소리를 위하여 각별히 다듬은 것이라고 하니 完板本이야말로 판소리의 가장 original 한 text 라고 보아야겠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인은 이 完板本 「春香傳」을 토대로 서양문학에서 말하는 소설이나 희곡등의 개념이 과연 적용될수 있느냐 없느냐를 분석검토하여 보았다.

첫째로 판소리는 소설이다라고 하기엔 여러가지 난점이 있다. 우선 서양문학에서 시 소설 희곡이라고 할때의 「소설」은 분명히 novel 을 말하는 것이요 결코 소위 fiction 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백히 해둘 필요가 있다. 왜냐면 fiction 과 novel 은 엄밀히 구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간단히 말해서 fiction 은 무릇 이른바

story 라는 것을 가진 모든것의 총칭, 말하자면 구전(口傳)의 설화나 전설 따위의 고담에서부터 novel 은 물론 romance 나 narrative poetry 심지어는 어의(語義) 상으로 보아 drama 까지도 포함할수 있는 광범위한 유별적(類別的)인 의미를 갖는 말이요 결코 문학의 한 genre로서의 좁은 의미의 「소설」을 지칭하는 말이 아닌 것이다. 그러면 novel 이란 무엇인가? 이것을 정의하기란 지극히 어렵다. 따라서 다만 그 기본적인 몇가지 특징을 설명하고 그것들과 「春香傳」을 분석대비하여 「春香傳」의 소설적인 요소를 가려내는 동시에 다음과 같은 몇가지 근본적인 상위점(相違點)을 지적하였다. 첫째 소설이 어디까지나 산문의 형식인데 반해 판소리 「春香傳」은 운문으로 되어있다는 점. 둘째 소설이 어디까지나 혼자서 읽는 것이 위주인 일종의 novel 인데 반해 판소리 「春香傳」은 땀으로 읊고 운에 맞추어 낭송하는 것을 귀로 듣는 것이 위주인 일종의 visual art 라는 점. 따라서 셋째 소설에서는 희곡에서와 마찬가지로 plot characterization 이 서로 유기적인 상관관계를 갖고 전체적인 structure 를 논리적으로 구성해가는데 반해 판소리 「春香傳」은 「소리」의 묘미를 살리기 위해 plot 의 진전이나 characterization 에 별로 관계가 없는 서술이나 소위 삽입가요 등이 풍부하여 소설로서의 구성에 논리적인 결함이 많다는 점. 넷째 판소리 「春香傳」은 소설과는 달리 성질상 판소리의 「대본」이니까 연극의 작본과 마찬가지로 무대위에 올려서 관중앞에서 「소리」와 「아니리」와 「발림」으로 연창(演唱)을 해야 비로소 그 전 생명이 살아나는 하나의 작품, 말하자면 stage-presentation 이나 performance 를 전제로 하고 있는 하나의 형식이라는 점. 이러한 점들로 보아 판소리가 소설적인 요소는 충분히 있되 소위 서양문학에서 말하는 novel 일수는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둘째로 판소리는 희곡이다라고 하는데도 여러가지 난점이 있다. 판소리가 stage-presentation 을 전제로 하고 있고 한사람의 연기자가 나와서 소위 연창(演唱)을 해나간다는 점에선 희곡과 흡사한 점이 있으며, 따라서 판소리는 소설 보단 본질적으로 희곡에 가깝다고도 하겠으나 그렇다고해서 판소리가 엄격한 의미에서 서양문학에서 말하는 이른바 drama 라고 하기에는 어렵다. Drama 는 소설과는 달리 아주 엄격한 여러가지 문학상의 약속이나 관습(literary-conventions)의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형식에 있어서도 소설에서 처럼 자유자재로운 유동성이나 탄력성이 없고 그 자체가 지닌 모든 능력에도 자연 한계가 있다. 이런 여러가지 제약과 한계를 설명하고, drama 가 어디까지나 dialogue 와 action 두 가지만을 그 표현 수단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생기는 그 자체내의 여러가지 엄격한 conventions 를 또한 설명한 다음 판소리 「春香傳」과의 대비에서 그 희곡적인 요소를 가려내는 한편 아래와 같은 몇가지 근본적인 차이점을 지적할수다. 첫째 희곡은 전적으로 dialogue 로만 되어 있으나 판소리는 서술이 많다. 둘째 희곡의 dialogue 는 단순히

서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action 을 수반해야 하며 앞으로 있을 dialogue 에 대한 지시도 되어야 하는 데 판소리의 action 는 소위 창을 살리기 위한 불필요하게 긴 서술이나 삽입가요 등이 많아 직접적인 action 의 수반이나 지시가 되는 일이 드물다. 셋째 판소리는 stage-presentation 이 있긴하나 그것은 극중인물과는 전혀 아무런 관계도 없는 연창자(일종의 narrator)가 나와서 혹은 「소리」로 혹은 「아니리」로 소위 「발림」이란 것을 섞어가며 혼자서 사건이나 등장인물들을 혹은 설명도하고 혹은 묘사도 하고 혹은 dialogue 를 대신 말하기도 하면서 엮어가는 것이어서 말이 stage-presentation 이지 그 본질상 희곡처럼 등장인물들이 직접 나와 전편을 act(實演)하는 것이 아니라 이더까지나 제삼자가 narrate(이야기)하는 것이다. 따라서 넷째 판소리는 희곡에서 말하는 바와 같은 action 이 전혀 없다. 다섯째 판소리는 무대에 올리는 하나 소리의 성질상 혼자서 전편을 다 연창할수 없으므로 대목대목을 잘라서 하였다는 사실은 주로 뭇을 듣기 위한 것이지 한편의 drama 로서의 소위 관극(觀劇)일수 없었다. 이러한 점들로 보아 판소리가 희곡적인 요소는 충분히 있게 서양문학에서 말하는 이른바 drama 일수는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셋째로 그러면 판소리는 과연 어떠한 genre 의 것인가? 어떤이는 판소리를 서사시의 유행으로 보고 판소리는 본질적으로 서사시라고 한다. 그 「본질적」이란말이 판소리의 형성과정을 두고 하는 말이라면 그의 말대로 서사시적인 성격이 있다고 하겠으나, 판소리가 내용으로나 형식상으로 보아 서사시일수는 없다는 점을 아태와 같이 지적하였다. 첫째 서사시가 일종의 소위 narrative poetry 로서 장엄한 운문으로 신이나 영웅들의 일련의 행위업적을 국민적 혹은 민족적이상의 반영으로서 읊은 것이라면 판소리의 대상은 너무나 서민적이며 비록 운문으로 되어있긴 하되 받는 인상이 너무나 산문적이다. 둘째 Aristotle 에 의하면 서사시는 drama 의 성질을 갖고 있으나 drama 보다도 훨씬 넓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고 또 수많은 각기 다른 사건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사건 하나하나가 제각기 하나의 독립된 dramatic plot 가 될수있다는 점, drama 가 현재의 표출(表出)인데 반하여 서사시는 과거의 서술이라는 점, 또 서사시는 각기 다른 장소에서 일어난 사건을 동시에 얘기할수 있으나 drama 는 그렇게 할수 없다는 점등이 서로 다르다고 하는데 판소리는 엄밀한 의미에서 drama 는 아니지만 drama 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독립된 plot 로 통일되어 있고 무대가 한 둘 또는 서너넋 곳으로 한정되어 있고 그 진행도 현재의 표출이라는 점등 지극히 희곡적이다. 따라서 판소리는 서사시와도 다르다고 하겠다.

또 어떤이는 판소리를 서양문학에서 말하는 소위 romance 에 비해보기도 한다. romance 는 novel 의 전신이라고도 할수 있겠지만 서양문학에선 이 둘을 엄격하게 구별하여 romance 는 소위 novel 의 genre 속에 넣질 않는다. 이것은 윌태가 중세(中世)의 교양인들이 읽는 고전어(Greek Latin)의 시문(詩文)에 대해서 일반서민이 듣

는 속어(Romance languages)의 이야기였다는 점에서 판소리와 비슷한 점이 있다 하겠으나 그 내용이 거의 전적으로 가공적인 기사와 귀부인의 사랑얘기라는 점, 성격을 지나치게 과장하고 이상화하는 점, 또 모험적인 것 이상한(extraordinary)것 가설적(假說的)인 것등을 중요시 하고 색치나 경치 및 이국(異國)정서 따위를 강조하는 점등을 그 특성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realistic 한점이 없고 황당무계하여 현실을 도피하는 일종의 도피문학으로 간주되고 있다. 판소리가 곧 근대적 novel 이나 drama 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들이 갖고 있는 여러 요소들을 풍부하게 갖추고 있고 게다가 musical performance 까지 동반하는 하나의 종합예술 형식임을 생각하면 romance 의 구별은 자경해 질 것이다. 물론 romance 에도 산문으로 된것위에 운문으로 된소위 metrical romance 라는 것이 있으나 운문의 형식이 까다로운 뿐 그 특질은 산문의 것과 대동소이하다 할 것이다.

그러면 넷째로 소설도 아니요 희곡도 아니요 서사시라고도 할 수 없는 이 판소리의 genre 는 과연 무엇이겠는가? 본인은 판소리를 판소리라는 우리의 독특한 하나의 genre 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다. 왜냐하면 우선 판소리 이전에 이미 오래 동안 근대적인 소설이 유행하고 있었으니 따라서 판소리가 소설의 형식을 모를리 만무하였을 것이며, 희곡만 하더라도 원곡(元曲)이 이웃 대륙에서 그렇게도 성행하고 있었으니 문물백반에 걸쳐 중국을 본따든 우리나라에 그 소문이라도 민간에 들려오지 않았을리 없었을 것이니 그렇다면 판소리는 연대적으로 보아 이미 그 형성과정에서 소설이나 희곡의 특징을 흡수동화시켜 왔다고 보아야 하겠기 때문이다. 판소리가 앞서 말한바와 같이 그 자체속에 근대적인 novel 이나 drama 의 요소들을 풍부하게 갖추고 있다는 것도 바로 이러한 사실을 설명해 주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판소리는 어떤이의 말처럼 소설과 희곡으로 발전적 분화를 했어야 할 성질의 것도 아니요 또 희곡의 원초적 형태라고도 할수 없다. (희곡의 원초적 형태라면 곧 희랍극을 들고 나올수 밖에 없으나 희랍극은 원래가 문답형식으로된 Dionysus 신의 송가를 지휘자와 Chorus 가 대창(對唱)한데서부터 비롯되었고 일인 다역(一人多役)이라고는하나 역(役)이 바뀔때 탈과 분장을 바꾸었으니 대창도 아니요 백면(白面)에 분장도 없이 순전히 imagination 에만 호소하는 우리의 판소리와는 그 형태가 다르다고 하겠다.) 그 반대로 판소리는 이미 그 이전에 존재한 소설과 희곡의 특징을 흡수동화하여 독자적인 발전을 한 하나의 독특한 예술형식인 것이다. 판소리엔 희곡에서 말하는 그런 의미의 dialogue 도 없고 action 도 없다. 그러나 오묘한 음색의 구별로 action 을 묘사하고 dialogue 를 대신하는 「소리」와 「아나리」에 「발림」을 섞어가며 대창이나 마당같은 아무런 장치도 없는 즉석무대에서 둘러싼 관중의 imagination 을 극도로 자극하여 혹은 울리고 혹은 웃길수 있는 말하자면 고도로 발달한 예술형식인 것이다. 소설과 희곡과 시와 음악이 하나로 동화해서 「완성된」 일종의 종합예술형식이 바로 판소리인 것이다. 따라서 판소리는 성질상 다른 genre 로 분화될수도 없고 또 기어이 다른 genre 로 분류해 넣을 필요도 없다. 판소리는 어디까지나 우리의 독특한 교유의 genre 로 보아야 마땅할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